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5호 [투계 제2493호]

주제 107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음력 4월 26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김정은만세!〉 소리 하늘땅 진감》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정은만세!〉 소리 하늘땅 진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의 하늘가에 《김정은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세계적인 정치

세계 각 국가 격찬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은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심포하였다. 또한 핵시험중지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폐기하는 의식에 국제기자를 초청하였다. 지금 조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총집중하고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밝은 전망이 펼쳐졌다. 이것은 거대하고 경이적이며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조선은 하나다!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조선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은위원장 만세!

## 《조선의 북남수뇌분들 판문점에서 또다시 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신 소식을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판문점 조선측 지역에서 상봉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문제인대통령은 북남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며 련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분별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지고 하시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북남수뇌상봉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나가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문제인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문제인은 판문점 북측지역 방문을 기념하여 통일각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 중국보도망, 환구망,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페르스통신, 신문 《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에호 모스크비방송, 쿠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익스프레스》, 《스레이즈멘》, 《힌두》, 《타임스 오브 인디아》, ANI통신,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미러언즈, 이란의 타스님통신, 프레스TV방송, 네팔의 신문 《코르카 익스프레스》, 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 캄보자의 신문 《크메르 타임스》, 국가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도요신보》, NHK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도이칠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민주광교신문 《라브니르》,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예절트신문들인 《알 아흐람》,

## 조국소식

###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경축하여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국가의 고마운 손길 아래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게 준비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가 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박철민 1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조선소년단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소년단원들이 강성조선의 기동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소년단원들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라고 하면서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결사

우위하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고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붉은 벚꽃이 날리며 300만 앞으로》가 진행되었다. 같은 날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에게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깃든 생일상을 차려주는 뜻깊은 축하모임이 진행되었다.

### 항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공화국에서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는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도 봉천군과 청단군, 룡매도간석지지구의 방대한 면적의 논과 밭에 관개용수를 자연흐름식으로 충분히 대주어 해마다 많은 알곡을 증

수하며 레성강지역의 큰물피해를 막고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사업이다. 황해북도의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5개소의 대공사공사를 기한전에 끝냈다. 자장도의 건설자들도 물길굴

확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 버력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를 고정하여 시간당 작업실적을 훨씬 높였다. 저수지연계건설을 맡은 평양시 건설자들은 장성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언제 전기간에 대한 배수담담공사를 계속하였다. 본사기자



집단지력으로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진행

【판문점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열망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경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조영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립장을 확인하였으며 실천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공동전략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며 6.15공동선언 발표 18돐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북남장령금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의 시기와 장소들이 밝혀져 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밖에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의 령결, 현 대화문제를 토의하는 분과회의, 우리 예술단의 남측지역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날자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며 판문점선언리행을 추진하기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 자주의 원칙은 판문점선언의 근본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통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 의지에 의하여 지난 4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탄생하였다. 온 민족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하여 내외에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인

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기 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자주의 원칙은 판문점선언의 근본핵이라고 할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통일운동의 전진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공동의 번영

을 이룩해야 할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전도와 운명문제는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평화번영,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민족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김철성

## 조선의 힘은 자강력에 있다

여러 나라 언론들 보도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준다고 하면서 날로 강해지는 조선의 힘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전하고있다. 로씨야 이르쿠츠크주 동부세비리출판사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수도 평양은 결코 (광교) 용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날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플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의 현실은 온갖 제재와 압박에도 끄떡없이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정신력의 반영이다. 또한 조선이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유족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하자고

는 인민이라고 하면서 주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낸 용감한 민족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불굴의 인민이라고 찬양하였다. 도이칠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는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도제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는것, 강대국의 진정한 징표는 수명의 위대성, 일심단결의 위력, 막강한 군력이라는것은 조선인민이 오랜 투쟁기간에 새긴 력사의 진리이라고 강조한 글을 편집하였다. 영국신문 《프로테라리언》은 지난 수십년간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강력으로 전진해온 나라, 자력갱생을 자기 발전의 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을 핵위협이나

제재로 굴복시키려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며 어리석은것이라고 평하였다. 타이의 《성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세계적수준의 특수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 국방을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본사기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